

東草市誌

3권

V. 지명

正誤表

3권	V. 지명
----	-------

13쪽, 위에서 10째줄, 지명 수정

상·하도문리가 도문리로 합병, 사야지진리·사야지리가 각각 사진리(沙津里)·사촌리(沙村里)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사진리로 합병되는 등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

⇒

상·하도문리가 도문리로 합병, 사야지진리·사야지리가 사진리(沙津里) 등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

21쪽, [표] 내용 삭제 수정, 단어 한자 수정

2) 사진리(沙津里)

바닷가 모래톱에 이루어진 마을이라고 하여 ‘모래기’, 또는 ‘사진리(沙津里)’ 라고 하였다. 1973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獐川里)를 병합하여 속초시 장사동(章沙洞)에 편입하였다.

⇒ 장천리(章川里)

구분	명칭	한글명		비고
		1910년대	현재	
리명(里名)	『조선지리지』: 사진리(沙津里)	나루모퉁기	사진리	1973년 속초시로 편입
	『어』: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 『읍』·『조』: 사진리(沙津里), 『관』: 사촌리(沙村里)			
현명(峴名)	백현(白峴)	흰고기	흰고개	-
포명(浦名)	영랑호(永郎湖)	-	영랑호	-
명소(名所)	영랑호(永郎湖)	-	영랑호	-

⇒ 『관』: 사촌리(沙村里) 삭제

22쪽, 아래에서 1째줄, 단어 한자 수정

예전 정상에 노송 세 그루가 있어 푸르름을 더하였고, 소야8경(所野八景)에는 “우뚝 솟은 산이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병풍을 둘러친 것과 같다” 하여 ‘청대화병(靑臺畫屏)’ 이라 하였다.

⇒ 청대화병(靑臺畫屏)

23쪽, 위에서 5째줄 문장 수정, 아래에서 3째줄 단어 수정

3. 덕산(德山)

설악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주봉산(朱鳳山)·청대산을 거쳐 대포동 외옹치리 북쪽의 끝나는 지점의 산을 ‘덕산(德山)’ 이라 하며, ‘웅진(瓮津)’ 의 끝에 있는 산으로 봉수가 있었기 때문에 ‘덕산봉수(德山烽燧)’ 라고도 한다. 1940년대까지 봉수대의 석축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그 자리에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관광지 개발로 부대가 이전하였다. 현재 롯데리조트가 자리하고 있다.

⇒

~ ‘덕산봉수(德山烽燧)’ 라고도 한다. 2014년 관광시설 조성전까지 봉수대의 석축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그 자리에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다 가 관광지 개발로 부대가 이전하였다. 현재 롯데리조트

속초가 자리하고 있다.

달마봉에 오르면 오른쪽에 보이는 영랑호(永郎湖)의 잔잔한 물결에 달마봉의 모습이 비친다고 한다.

⇒ 북동쪽

27쪽, 위에서 13째줄, 도로 표기 수정

1989년 6월 17일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차관 사업으로 왕복 2차선 확포장 공사의 완공으로 민간에 개방되었다. 이후 2006년 5월 3일 미시령동서관통도로(미시령터널)가 개통되었고, 2010년 전 구간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되었다.

⇒ 2차로에서 4차로로

29쪽, 12째줄,

9. 공룡(恐龍)능선

마등령에서 희운각 못미처 바로 북쪽 신선암(神仙岩)까지의 바위 능선이다.

⇒ 무너미고개까지

32쪽, 아래에서 8째줄, 문장 수정

10) 새마을

1968년 동해안의 해일로 인해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마차진리(麻次津里)가 큰 피해를 당하였다. 당시 고성군 내의 어촌에서 최남단이었던 이 지역으로 집단이주시켜 새로 조성된 마을이었다. 현재는 예전의 집단형태를 벗어나 새로 건축되거나 주변의 상가가 형성되어 마을을 이루고 있다.

⇒

1968년 동해안의 해일 피해와 1969년 어로저지선의 남하로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주민들을

46쪽, 위에서 6째줄, 명칭 수정

11) 원각사

개안골 안에 있는 신흥사 포교당으로 속초의료원 뒤편에 있다. 일제강점기 설악심상소학교(일본인 자녀들 학교)가 있었던 자리이다. 현재 원각사 맞은편에는 반야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다.

⇒ 영랑심상소학교

49쪽, 위에서 3째줄, 명칭 수정

보광사에는 2020년 8월 21일에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불상 1구와 복장유물 9종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지정복장유물(木造地藏菩薩坐像, 腹藏遺物)’ 과 2018년 10월 26일에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현왕도(束草 普光寺 現王圖)’, 그 외의 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외형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찰이다.

⇒ ~ 유형문화재 보살상 1구와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자료 ‘현왕도(束草 普光寺 現王圖)’ ~

52쪽, 위에서 8째줄, 단어 한자 수정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읊으며 즐기는 곳이라 하여 비선대(緋仙臺)라고도 하였다. 또 다른 이름으로 화험정(火驗亭)

이라고도 한다.

⇒ 비선대(秘仙臺)

57쪽, 아래에서 4째줄, 문장 수정

4) 속초관광수산물시장(중앙시장, 3구시장)

속초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 속초리(束草里) 3구에 위치했으므로 3구시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동(洞)제 실시 때 3구가 중앙동(中央洞)으로 이름 지어짐에 따라 중앙시장(中央市場)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속초관광수산물시장(束草觀光水產市場)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속초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 속초리(束草里) 중앙에 위치했으므로 중앙시장이라고 했다. 속초리 3구에 위치했으므로 3구시장이라고도 불렀으며, 2006년에 속초관광수산물시장(束草觀光水產市場)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71쪽, 아래에서 7째줄, 단어 수정

또한 상도문리에 거주하는 분들의 증언에서도 진흙 모래가 많아 옹구의 재료인 진흙을 구하던 장소로 관련이 있으며, 한자인 ‘사니(沙泥)제’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찌리재로 변형이 된 것 같다.

⇒ 옹기의

99쪽, 아래사진 중 배다리 사진 및 설명 삭제, 아래에서 3째줄 문장 수정

3) 배다리

반부득 옆에 있는 마을로 사주(砂洲)에 위치한 지금의 청호동마을을 칭하는 말이다. 청초호(靑草湖)를 끼고 있어 이전에는 배로 건너다녔으므로 배다리라고 하였다. 한자(漢字)로 써서 주교(舟橋)라고도 한다.

⇒

반부득 옆에 있는 마을로 사주(砂洲)에 위치한 지금의 고속버스터미널 뒤편부터 이마트 일대의 청호동마을을 칭하는 말이다. 청초호(靑草湖)를 끼고 있어 이전에는 배로 건너다녔으므로 배다리라고 하였다. 한자(漢字)로 써서 주교(舟橋)라고도 한다. 1988년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속초문화 제4호에 강원일보 교열 부장이었던 김명환의 「내고장의 옛地名」에 ‘배다리는 중앙동 갯배터에서 떠난 갯배가 와닿는 나루터. 현재 한쌍의 나룻배가 샷대를 집어던진채 도선줄을 호반에 드리워 왕래하고 있다. ~배다리에서 청초호 건너 갯배나루 간은 청호동 주민들의 왕래로 언제나 붐비고 있는 도선장(渡船場)이 된다.’ 라고 배다리의 위치를 다르게 갯배터를 얘기하고 있다.



배다리

⇒ ‘사진 및 설명’ 삭제

123쪽, 위에서 8째줄, 아래에서 5째줄, 범정 용어 수정

10) 망바위

정고평(丁庫坪), 무명 용사의 비(無名 勇士의 碑) 뒷산 중턱에 있는 네모난 큰 바위를 말한다. 옛날에 도적들이 이 바위에서 망을 보면서 주위를 살펴 부근을 지나가던 장사꾼이나 행인들의 물건을 빼앗았다고 한다.

⇒ 이름 모를 자유용사의 비

12) 무명용사의 비(無名勇士의 碑)

정고평(丁庫坪)에 있으며, 원명은 이름 모를 자유 용사의 비이다.

⇒ 이름 모를 자유용사의 비

127쪽, 위에서 12째줄, 범정 용어 수정

28) 정고평(丁庫坪)

소공원에서 비선대(飛仙臺)로 가는 중간에 있는 별관을 말한다. 현재 무명 용사의 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 이름 모를 자유용사의 비

東草市誌

3권

VI. 성씨·인물

正誤表

155쪽, 아래에서 4째줄, 문장 수정

일제강점기 「민적법」의 시행, 6.25 한국전쟁 이후 북한 실향민의 대거 정착, 어획고 증가로 인한 전국 어업종사자들의 유입, 설악산으로 인한 관광서비스업 종사자 유입 등으로 속초지역의 성씨는 더욱 다양해진다.

⇒ 1909년 대한제국 때에 시행한 「민적법」, 6·25 한국전쟁 이후 북한 실향민의 대거 정착, ~

206쪽, 위에서 16째줄, 문장 수정

12) 김용식(金龍式, 1896~1963)

중도문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현대의 법조인이다. 호는 청초(靑草)이다. 1929년 32세의 나이에 독학으로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

중도문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현대의 법조인이다. 호는 청초(靑草)이다. 1923년부터 5년 동안 강원도경과 원주, 양양, 철원의 경찰서에서 경부(警部) 직책을 맡아 경찰로 근무하다가, 1929년 32세의 나이에 독학으로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207쪽, 위에서 3째줄

13) 김우규(金雨圭, 1874~1947)

208쪽, 위에서 2째줄, 15째줄

15) 김주혁(金周赫, 1893~1975)

16) 김창렬(金昌烈, 1885~1944)

중도문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다.

⇒ 양양군 강현면 중북리(中福里) 출신으로

209쪽, 위에서 6째줄, 아래에서 3째줄,

18) 김철기(金哲起, 1883~1946)

사진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다.

⇒ 양양군 강현면 사교리 출신으로 ~

20) 김환기(金煥基, 1888~1950)

사진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다.

⇒ 양양군 강현면 사교리 출신으로 ~

210쪽, 아래에서 3째줄,

22) 박상희(朴祥喜, 1890~1948)

장천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관료이다. 호는 초은(樵隱)이다.

212쪽, 아래에서 1째줄, 위치 수정

23) 양재신(梁在信)

~ 태풍으로 희생된 마을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사재(私財)로 조난자 위령비를 건립하였다. 위령비는 대포 초등학교 뒤편에 남아있다.

⇒

~ 위령비는 대포동에서 하도문으로 넘어가는 길 옆, 대포동 161-1 일원에 있다.

213쪽, 위에서 1째줄, 아래에서 3째줄부터 214쪽 위에서 16째줄 문장 수정

26) 이국범(李國範, 1869~1931)

중도문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다.

⇒

양양군 현북면 장리(獐里) 출신으로 ~

29) 이석범(李錫範, 1859~1932)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다. 본관은 함평, 자는 사일(士一), 호는 설초(雪樵)이다. 양양 임천리에서 출생했고, 도천면 중도문리로 이주하였다. 1884년 초시에 급제했다. ~ 순종 국장에 참례하고, 1927년에는 신간회 양양지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

1884년 초시에 급제하고 동학란 때에는 반동학군을 조직하여 갑오(甲午)의병장으로 활약한 전통적인 유학의 인물이다. 1899년에 증추원 의관을 거쳐 1905년 군부주사 겸 군기창기수에 임명되어 국정의 심의에 참여하여 토비(土匪) 평정을 하고 신흥사(神興寺)를 파산에서 복구하였다. 1910년 일제의 합병통치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벼슬을 버리고 낙향, 은인자중(隱忍自重) 하여 오던 중 뜻하는 바 있어 초대 도문면장에 잠정적으로 역임하고 개화의 문물에 눈을 돌려 대포항을 크게 개항하여 물물교역의 경제향으로 발전시키는데 헌신했다. 1908년 및 1913년에는 당시 양양 군수 남궁익, 도천면민과 더불어 양양 현산학교와 도문 쌍천서숙을 설립하고 후진의 양성에 힘써 항일정신을 기여하는데 노력하였다. 1919년 3월 1일 망국의 쓰라림 속에서 고종황제의 국장에 참례하고 손병희 등 33인이 창도(唱導)한 기미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하면서 내려올 때 독립선언서 문헌을 버선 속에 숨겨 가져왔다. 이에 그 동생 전궁내부주사 이국범과 모의하고 장남 농열(재훈), 차남 동열(재형) 그리고 족손(族孫)이 되는 이교완, 이교정을 주동자로 하고 문생 중도문 출신으로 김영경, 이종국 등과 양양면 임천리 이교완의 집을 거점으로 하여 최인식 등 50여 명을 각 면 동원 책임자로 정하고 양양 장날인 4월 4일에서 9일까지 연 6일간에 걸쳐 양양읍내, 대포, 물치, 기사문 등지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절호한 만세운동을 총지휘 하였다. 이 만세운동으로 외경에게 함흥기 등 12의사를 잃고 동생 국범, 장남, 차남 등 80여 명과 함께 투옥되어 혹심한 고초로 4월초 체포되어 함흥 지방법원 원산지청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유죄판결에 공소하여 1919년 1월 26일 경성복심 형사부에서 판결받고 형(刑)은 면하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일제에 굴하지 않고 1926년 6월 10일 순종 국장에 참례하고 1927년에는 이상재 선생 등과 민족주의 통합체인 신간회를 조직하여 강원도지부장으로 활약하던 중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2년 9월 1일 정년 74세로 작고하였다.

222쪽, 위에서 11째줄, 문장 수정

10) 김수석(金壽石, 1907~1997)

6·25 한국전쟁 당시 속초 청호동으로 이주한 북청 출신 실향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속초에서 사자놀음이 전승된다. 김수석은 1958년 북청사자놀음에 쓰이던 사자탈을 속초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재현하였다. 1959년 5월 그를 중심으로 속초에서 북청 동향 친목계가 만들어지면서 북청사자놀음 연단 결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6·25 한국전쟁 당시 지금의 청호동 지역으로 이주한 북청 출신 실향민들이 집단적으로 ~ 만들어지면서 북청사자놀이 **연희단** 결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25쪽, 위에서 3째줄, 명칭 수정

17) 김종록(1925~2015)

1982~1986년 제4대 속초문화원장을 역임하면서 **수북탑** 재건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향토 문화 전문지로는 속초에서 처음 나온 『속초문화』를 창간했다.

⇒ 수북기념탑

226쪽, 아래에서 15째줄,

22) 김희관(金熙寬, 1923~2000)

229쪽, 아래에서 3째줄, 자호 수정

29) 무산(霧山, 1932~2018)

승려이자 시조 시인이다. 법호는 만악(萬嶽), 속명은 조오현(曹五鉉), 자호는 **설악(雪嶽山人)**이다.

⇒ 설악(雪嶽)

236쪽, 위에서 12째줄, 문장 수정

46) 오윤근(1923~2021)

교육자이자 사회단체장이다.

⇒ 교육자이자 향토문화인이다.

243쪽, 위에서 9째줄,

59) 이형근(李亨根, 1920~2002)

247쪽, 아래에서 12째줄,

71) 정일권(丁一權, 1917~1994)

253쪽, 아래에서 13째줄,

86) 한병기(1931~2017)

254쪽, 아래에서 15째줄,

89) 황금찬(黃錦燦, 1918~2017)

258쪽, 위에서 3째줄, 년도 수정

7) 1942~**1662**년 역대 속초읍장

⇒ 1962

東草市誌

3권

VII. 정치·행정·의회·사법

正誤表

3권	Ⅶ. 정치·행정·의회·사법
----	----------------

269쪽, 아래에서 8째줄, 문장 수정

선거 결과 영랑동, 동명동 선거구에서는 6인의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최준집 후보가 유효투표의 23.2%를 득표함으로써 제3대 속초시의회 의원선거에서 노학동 선거구에서 당선된 뒤, 선거구를 바꾸어 출마한 선거에서 당선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노학동 선거구에서는 2인 선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3인의 후보만이 입후보함으로써 1.5:1의 경쟁률로 김정환, 고헌재 후보가 당선되었다

⇒ 노학동, 장사동 선거구에서 당선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272쪽, 위에서 11째줄, 문장 일부 삭제 수정

나선거구 1위로 당선된 후보는 민주당의 방대식 후보로 한나라당과 그 계열 후보들의 난립으로 체면치레를 하였다.

한편, 속초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한나라당의 정경숙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직전 선거에서 22.2%를 얻는 데 그치며 망신을 당한 민주당(열린우리당)은 같은 돌부리에 두 번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며 기권패를 택했다.

⇒

나선거구 1위로 당선된 후보는 민주당의 방대식 후보였다. 한편, 속초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한나라당의 정경숙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직전 선거에서 22.2%를 얻는 데 그친 민주당(열린우리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았다.

277쪽, [표] 인명 수정

<제3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속초시 선거구 결과>

선거구	입후보자	소속정당	대표경력	득표수	득표율	당선자
제2선거구	윤중국	민주자유당	마을금고연합회 속초시 회장	2,957	29.7	윤중국
	<u>김관희</u>	신민주연합당	신민주연합당 4지구당 위원장	728	7.3	
	한광정	민주당	통일민주당 중앙상무위원	202	2.0	
	~	~	~	~	~	

⇒ 김희관

301쪽, [표] 직업의 광역자치단체장 표기 오류 수정

<제8대 민선 강원도지사 선거 속초시 선거구 결과>

입후보자	소속정당	직업	학력 및 경력	총득표수 (득표율)	속초시 득표수 (득표율)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서울대 대학원 영문과졸 제18대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518,447 64.7	26,237 66.1
정창수	자유한국당	무직	경희대 대학원졸 국토해양부 제1차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282,456 35.3	13,443 33.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 강원도지사

305쪽, [표] 직업 표기 수정

<제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강원특별자치도 제7지역구)>

입후보자	소속정당	직업	학력 및 경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최정식	민주당	회사원	대학원졸, (주)대한반공정비 사장	17,315(30.6)	
김두열	민정당	상업	대졸, 예비역 대령	4,284(7.6)	
김종호	민주공화당	<u>상무</u>	<u>대중퇴, 수도의대 상무이사</u>	23,684(41.8)	당선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 상무이사 1 대중퇴, 수도의과대학 상무이사

339쪽, 아래에서 11째줄, 지명 수정

감영 밑에 춘천에는 좌영, 구성(構城)에는 중영, 삼척에는 우영을 두고 순찰사가 순회하면서 공무를 처리하였다.

⇒ 횡성(橫城)

340쪽, 아래에서 4째줄 문장수정, 각주 7) 면사무소 위치 지역 수정

1926년에 발간된 도천면 『면세일반』에 따르면 면장은 1907년부터 설치되었고, 1913년에는 소천·도문 연합면으로 되었다가 1914년 도천면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각주 7)

⇒

1926년 면세일반에 ‘대정 3년(1914)에 이르러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천·도문연합면이 되고, 대정 3년(1914)에 도천면으로 변경함으로써 오늘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각주] 7. 1914년 3월 1일 일제는 부령(府令) 제111호로 지방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때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이라 개칭하고 면사무소를 대포리에 두었다. 그리고 속진지(束津里)가 속초리(束草里)에 합쳐졌으며 ~

⇒ 중도문리

342쪽, [표] 지명 위치 설명 수정

일제강점기 초기와 달라진 땅이름

일제강점기 지명	현재지명	위치	설명
배다리(주교)	청호동	청호동 갯배나루	주도로가 청호동을 관통하며, 지금 갯배 통로는 배로 건너고 있음.
나무고개	나무고개	대포동	
바깥독재	외옹치	대포동	
안독재	대포	대포동	

⇒ 청호동 1 조양동 고속터미널 뒤편의 육지가 다리 모양처럼 뻗어서 도선장으로 이어져 부두와 같다하여 청호동을 배가 닿은 부두 반부둑 또는 배다리라고 했다. 한자로 주교(舟橋)

344쪽, 아래에서 4째줄, 지명 추가 수정

부월리, 논산리, 청대리는 합쳐져서 조양동으로,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는 합쳐져서 노학동으로,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는 합쳐져서 대포동으로,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는 합쳐져서 도문동으로, 장항리는 설악동으로 변경되어 총 12개 동으로 개편되었다.

⇒

부월리, 논산리, 청대리, 온정리는 합쳐져서 조양동으로

345쪽, [표] 수정

행정구역 개편 현황

시제 행정 구역(1963. 1. 1.)		동제 행정 구역(1966. 1. 1.)
속초리	1구, 2구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3구, 4구	금호동
	5구	청호동
	6구	청학동, 교동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노학동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조양동
부월리	1구	청호동
	2구	대포동
외옹치리, 대포리, 내물치리		대포동
하도문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장항리		설악동

출처: 속초문화원, 『속초의 근·현대사』, 2004.

⇒ :

행정구역 개편 현황

시제 행정 구역(1963. 01.01.)		동제 행정 구역(1966. 01.01.)
속초리	1구	영랑동
	2구	동명동
	3구	중앙동
	4구	금호동
	5구	청호동
	6구	청학동, 교동

부월리, 논산리, 청대리, 온정리	조양동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노학동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	대포동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도문동
장항리	설악동

행정구역 편입(통합) 현황

날 짜	기존구역	편입(통합)동	관계법령
1973. 1. 1.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	장사동	대통령령 제6542호
1983. 2. 15.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	설악동	대통령령 제11027호
1990. 4. 1.	사진동, 장천동	장사동	시 조례 제1657호
1998. 10. 17.	영랑동, 장사동	영랑동	시 조례 제1657호
	중앙동, 금호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일부	교동	
	교동 일부, 노학동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대포동	

출처: 속초문화원, 『속초의 근·현대사』, 2004.

⇒:

행정구역 편입(통합) 현황

날짜	기존구역	편입(통합)동	관계법령
1998.10.17.	교동 일부, 노학동	노학동	시 조례 제1657호
	청호동, 조양동 일부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대포동	

347쪽, 사진 교체 수정



속초시청 전경

⇒ 1960년대 사진이 아니기에 삭제



사진=1970년 속초시청사 모습

⇒ 사진교체

362쪽, 아래에서 8째줄, 단어 수정

3월 11일에는 조양 택지개발지구에서 고인돌, 돌화살촉 등 청동기시대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 **유적과 유물**

367쪽, 위에서 3째줄 문장수정, 아래에서 11째줄 장소 수정

속초 ‘갯마당’ 풍물패 국악대경연 은상(98.5.26.),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이 KBS공개홀에서 열린 KBS서울국악대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

속초 풍물패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이 KBS공개홀에서 열린 KBS서울국악대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날짜별 특기사항으로는 2월 23일에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속초8경’ 공모에서 영랑호 범바위, 영금정 등대전망대, 청초호 **엑스포 상징탑**, 청대리 청대산, 속초해수욕장 조도, 대포 외옹치, 내물치 설악해맞이공원, 상도문 학무정이 선정되었다.

⇒ ‘**엑스포 상징탑**’ 삭제

~ 영금정 등대전망대, **청초호**, 청대리 청대산, ~

370쪽, 위에서 5째줄, 명칭 수정

대포동 주민 100여 명은 **수복탑**에서 폐기물 소각로 설치 반대시위를 벌인 데 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소문 등을 배포했다.

⇒ **수복기념탑**

375쪽, [표] 위치 이동

49. 2011년도

민선 5기(2010.07.~2014.06.)

민선 5기(제25대) 속초시장 채용생(1953.12.8. 출생)		
	△ 학력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행정학사) -청호초교(8회), 속초중·고교(18회)	△ 주요경력 속초시장(제24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근무 국무총리실 근무 강원특별자치도청 산업경제국장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문화국장
	△ 정당 -한나라당	
비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

⇒ 48. 2010년도 제목 밑으로 [표] 이동

386쪽, 위에서 15째줄, 년도 수정

하지만 청년몰 속초 「갯배St」의 경우 지난 6월 14일 화재로 인해 청년몰 점포 14개와 2층의 카페 1곳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 2023년

395쪽, [표] 내용 삭제 수정

5) 주요 기관

기관명	주소	비고
강원지방통계청	청초호반로 211 (교동)	
속초경찰서 영랑지구대	중앙로 22-9 (교동)	

⇒ 영랑동에 위치하지 않은 기관으로 삭제

396쪽, [표] 명칭 수정

기관명	주소	비고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법대로 15(동명동)	
<u>속초해양경비안전서</u>	동명항길 35(동명동)	
한국국토정보공사속초지사	중앙로 193(동명동)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해양수산사무소	동명항길 27(동명동)	
<u>동명·영랑동예비군동대</u>	<u>중앙로 257(동명동)</u>	

⇒ 속초해양경찰서

⇒ 동명,영랑동예비군동대 칸 삭제

397쪽, 위에서 1째줄부터 12째줄 까지 문장 수정

3. 금호동

1) 연혁

전에는 속초면 속초리에 속했던 것이 1942. 10. 1부로 읍제실시로 속초읍 속초리 4구(현재의 금호, 청학, 교동 포함)로 되었다가, 1954. 11. 17부로 4구(현재의 금호동과 청학동을 포함)와 6구(현재의 교동)로 구분되어 오다가, 1963. 1. 1부로 속초시로 승격되어, 시제 실시와 동시에 속초시 속초리 4구로 개편되었다. 이후 다시 1966. 01. 01부로 동제 실시로 속초시 중앙동과 금호동으로 동명을 개칭하였으며 1998. 10. 17 중앙동과 금호동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금호동(琴湖洞)은 1942년 10월 1일 읍제실시로 속초읍 속초리 4구(현재의 금호, 청학, 교동 포함)로 되었다가, 1954년 11월 17일부로 4구(현재의 금호동과 청학동을 포함)와 6구(현재의 교동)로 구분되어 오다가, 1963년 속초시 승격과 함께 속초시 속초리 4구로 개편되었다.

이후 다시 1966년 동제 실시로 속초시 중앙동과 금호동으로 동명을 개칭하였으며 1998년 10월 17일 중앙동과 금호동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00쪽, [표] 내용 수정

5) 주요 기관

기관명	주소	비 고
속초초등학교	수복로 117	
설악중학교	미시령로 3402	
강원지방우정청 속초교동수련원	교동로1길 7	
속초교육도서관	번영로 15	
속초농협 북부지점	미시령로 3389	
속초남부새마을금고 청학지점	중앙로 90	
IBK기업은행 속초지점	청학로 37	
KT 속초지사	중앙로 101	
석봉도자기미술관	엑스포로 156	

⇒ ‘속초농협 북부지점 / 미시령로 3389’ 을 ‘속초농협 본점 | 중앙로 21’ 로 수정

⇒ ‘KT 속초지사 1 중앙로 101’ 삭제

402쪽, 아래에서 10째줄, 단어 및 문장 수정

소야8경은 이전부터 전해지고 있는데, 삼연(三淵) 김 창흡(金昌翕)이 **계정**했다고 전해진다. 그런 까닭으로 **최근에 ‘삼연 김 창흡 선생 추념비(三淵 金 昌翕 先生 追念碑)’ 가 소야평야의 한가운데인 노학동사 무소 앞에 세워졌고,** 비석에는 소야8경이 새겨져 있다.

⇒

소야8경은 이전부터 전해지고 있는데,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제정**했다고 전해진다. **노학동에 있는 ‘삼연 김창흡 선생 추념비(三淵 金昌翕 先生 追念碑)’ 는 1982년에 세워졌고,** 비석에는 소야8경이 새겨져 있다.

405쪽, 아래에서 3째줄, 년도 수정

8. 대포동

1) 연혁

대포동(大浦洞)은 크게 3개의 법정동(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대포동(법정동)은 1966년 동(洞)제 실시때 외웅치리, 내물치리가 합쳐져서 대포동이 되었다. 1908년에는 양양군 도천면이었으며, 1937년 7월 1일에는 양양군 속초면에, 1942년 10월 1일에는 양양군 속초읍에 속해 있었다.

⇒ 1914

406쪽, [표] 내용 수정

5) 주요 기관

기관명	주소	비고
속초경찰서 대포치안센터	동해대로 3661(대포동)	
수질환경사업소	해오름로 99(대포동)	
향토예비군 대포동대	설악산로466(도문동)	

⇒

‘속초경찰서 대포치안센터’ 칸 삭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향토예비군 대포동대’ 칸 삭제

416쪽, 위에서 7째줄 관할 조직 일부 삭제, [표] 수정, 아래에서 2째줄 내용 수정

3) 속초해양경찰서 관할 및 조직도

속초해양경찰서 관할 파출소로는 속초항에 속초파출소, 낙산항에 낙산파출소, 주문진항에 주문진파출소, 거진항에 거진파출소가 있다.

⇒ ‘주문진항에 주문진 파출소’ 삭제

(1) 속초해양경찰서 조직도



⇒ 수정

거진파출소	속초파출소	낙산파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진출정소 가진출정소 송지호출정소 공원진출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입출정소 아미진출정소 봉포출정소 경사출정소 동명출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지출정소 대포출정소 수산출정소

(2) 관할파출소(속초항, 낙산항, 주문진항, 거진항)

속초파출소의 관할 출장소로는 고성 문암출장소, 아야진출장소, 속초 동명출장소가 있다.

⇒

속초파출소의 관할 출장소로는 속초 장사출장소, 동명출장소가 있으며, 고성 문암출장소, 아야진 출장소, 봉포출장소가 있다.

417쪽, 위에서 5째줄 문장 수정

낙산파출소의 관할출장소로는 속초 대포출장소, 양양 수산출장소가 있다. 낙산항은 주말 낚시어선 이용객 및 낚시객이 많고, 낙산해수욕장은 여름 피서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 관광객이 많다. 또한 인근에 낙산사 등 주요관광지 등으로 관광객 많이 찾는 곳이다.

중점 업무로는 연중 낚시객 및 관광객이 많아 주간 방파제 등 낚시객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할 주요 항포구는 양양 낙산항, 후진항, 물치항 등이 있으며, 주요 해수욕장으로는 낙산, 설악해수욕장이 있다.

⇒

낙산파출소의 관할출장소로는 속초 물치출장소, 대포출장소, 양양 수산출장소가 있다. 대포출장소는 대포항 인근 먹거리촌 등으로 관광객이 많은 특성이 있으며, 관광객 및 낚시객이 많아 주간 방파제 등 낚시객 안전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할 주요 항포구로는 대포항, 외옹치항, 설악항이 있다.

435쪽, [표] 내용 수정

3. 제3대 속초시의회

1) 제3대 속초시의회 의원 및 의장단

제3대 속초시의회 의원 현황

직위	성명	선거구	비고
의장	박학성	속초시 동명동	전반기
"	신철	속초시 영랑동	후반기, 전반기 부의장
부의장	조경식	속초시 대포, 도문, 설악동	<u>전·후반기</u>
의원	백영철	속초시 중앙, 청호동	
"	김종수	속초시 금호, 청학동	
"	고학재	속초시 교동	
"	최준집	속초시 노학, 장사동	
"	최창영	속초시 조양동	

출처: 속초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okchocl.go.kr/>)

⇒ 후반기

456쪽 아래에서 3째줄부터 457쪽 위에서 1째줄, 문장 수정 및 각주 2) 수정

이 규정은 1994년 7월 27일 「법원조직법」이 일부개정되면서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화해·독촉·조정에 관한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사건 협의상 이혼의 확인 등을 관장한다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상 이혼의 확인 등을 관장할 수 있게 되었다. 각주2)

⇒

또한 1994년 7월 27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995년 3월 1일부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호적법 제79조의2에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사건을 시·군법원이 관장할 수 있게 되었다. 각주2)

각주 2) 강원도 고성군, 『고성군지』, 고성군지편찬위원회, 2020, 926쪽.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4. 07. 27. [법률 제4765호, 시행 1995. 03. 01.]

458쪽, 위에서 10째줄 문장 수정 및 [표] 수정

현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관할하는 인구는 140,611명, 면적은 1,397km²이다.

속초지원 관할 인구 및 면적(2018.3.31. 기준)

관할구역	인구(명)	면적(km ²)
속초시	81,815	105.36
고성군	28,848	660.23
양양군	27,276	629.23
총계	137,939	1,394.82

출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홈페이지, 2018~2022

⇒

속초지원 관할 인구 및 면적(2023년 기준)

관할구역	인구(명)	면적(km ²)
속초시	83,418	106
고성군	29,117	661
양양군	28,076	630
총계	140,611	1,397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통계정보

東草市誌

3권

VIII. 산업·경제·사회간접자본

正誤表

3권	VIII. 산업 · 경제 · 사회간접자본
----	-------------------------------

485쪽, 아래 사진 설명 수정



1960년대 속초의 가을 농경지(속초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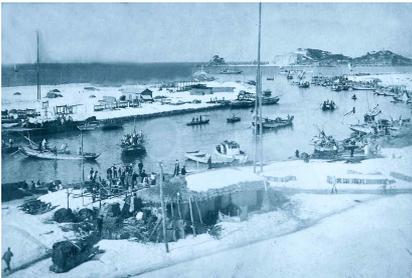
⇒ 1960년대 가을 농경지(속초시립박물관)

527쪽, 아래에서 6째줄, 문장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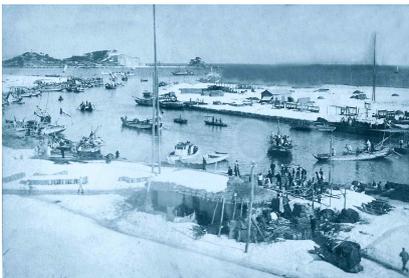
1937년부터는 청초호 안에서 굴 양식도 하였는데, 광복 직후 없어졌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수산물 통조림 공장도 있었다. 1944년경 다케나가[죽중(竹中)]라는 일본인이 부월리에 있던 나가시마[중도(中島)] 공장을 사서 콩치·고등어 등 어물 통조림을 군수품으로 생산하여 전쟁 일선에 납품했다.

⇒ 1920년대 청초호에서 굴 시범 양식도 하였는데,

528쪽, 사진 및 설명 수정, 위에서 4째줄, 문장 수정



⇒ 사진좌우반전



일제강점기 갯배나루 어선과 어민

해방전 갯배나루 출어하는 어선과 어민

1937년 속초항 건설과 함께 지역 발전이 가속화하고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변경될 때 면사무소와 어업조합이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하면서 어업조합은 수산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면사무소와 어업조합이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하였다.

532쪽, 위에서 2째줄, 문장수정

휴전 이후 속초조선공업사·동해조선소·제일조선소·강원조선소 등 5개의 조선소가 신설되어 속초지역에는 총 6곳의 조선소가 연간 1~9척의 선박을 새로 건조하였다.

⇒

휴전 이후 속초조선공업사·동해조선소·제일조선소·강원조선소 등 4개의 조선소가 신설되어 속초지역에는 총 5곳의 조선소가 연간 1~9척의 선박을 새로 건조하였다.

533쪽, 사진 설명 수정



1960년대 속초의 문어 건조(속초시립박물관)

⇒ 오징어

534쪽, 위에서 1째줄, 단어 수정

1960년대는 속초의 어선이 무동력선에서 동력선으로 전환하는 시기였다.

⇒

1950년대는 속초의 어선 대부분이 무동력선에서 동력선으로 전환하는 시기였다.

535쪽, 위에서 1째줄, 단어 삭제 수정

1960년대부터는 속초 연안 어장에서 잡은 정어리·명태·노가리·오징어·홍게 등을 가공 판매하는 수산물가공업체가 본격적으로 생겨난다.

⇒ ‘홍게’ 삭제

1960년대부터는 속초 연안 어장에서 잡은 정어리·명태·노가리·오징어 등을 가공 판매하는 수산물가공업체가 본격적으로 생겨난다.

575쪽, 아래에서 8째줄, 단어 수정

일반 상사람들은 대부분 흙 침상으로 땅을 파 아궁이를 만들고 그 위에 눕는다. 그것은 겨울이 워낙 춥지만, 습과 같은 것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상류 주택에서는 침상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서민주택에서는 온돌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사람들은

581쪽, 사진 설명 수정



1960년대 속초의 초가(속초시립박물관)

⇒

1960년대 초가(속초시립박물관)

584쪽, [표] 구분 수정

2019~2021년 속초시 주택 소유 현황

(단위: 호, %)

연별	총주택수	개인 소유	동일시군구 거주자 소유	동일시도내 타 시군구 거주자 소유	타시도 거주자 소유	총가구 (일반가구)	주택소유 가구	가구주택소유율
2019	36,090	31,349	23,076	2,344	5,929	34,213	19,688	57.54
2020	37,736	33,248	24,691	2,412	6,145	35,551	20,953	58.94
2021	39,169	34,308	25,365	2,497	6,446	36,656	21,918	59.79

출처: 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22.

⇒ 동일시군구 거주자 소유

598쪽, 아래에서 2째줄, 문장 수정

전쟁 직후 속초에는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는 속초리에 1구(영랑)시장·3구(중앙)시장·6구(청학)시장이 개설되었다.

⇒

전쟁 직후 속초에는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는 속초리에 1930년에 개설한 제일(1구)시장을 비롯하여 중앙(3구)시장·5구(청호)시장·6구(청학)시장이 개설되었다.

599쪽, 아래에서 10째줄, 단어 수정

1950년대 초 속초지역의 중심 생활권은 속초1구인 영랑동이었기 때문에 영랑동에 오일장이 서게 되었다.

⇒

1950년대 초 속초지역의 중심 생활권은 속초1구인 영랑동이었기 때문에 영랑동에 오일장이 활성화되었다.”

601쪽, [표] 제목 수정

<1950년대 **영랑동** 소재 업소 현황>

다 방	칼멘, 방가로, 망향, 미완성, 희망	악극단 (상주연예인)	고복수, 황금심, 황해, 백설희, 김승호, 김희갑, 허장강
카바레	비비, 신고아라, 동해	극 장	밀림, 속초, 중앙
요 정	계림관, 국일관	인쇄소	중앙, 속초
음식점	사합촌, 사육관, 원산식당, 동일면옥, 대명춘, 대흥면옥, 풍악관	의 원	협인, 백, 오, 대동, 김성우, 구호, 구세군, 강원도립 속초,
목욕탕	보건, 청호, 정일, 은하, 낙천	약 방	해동, 강원, 원산, 백림
사진관	백마, 평화, 승리, 남바완	신 문	동해일보
포목점	함녕상회	쌀가게	럭키상회, 녹거리쌀집
여 관	속초, 향도	그릇집	삼영공사
이발관	모란이발관		-

출처: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179쪽.

⇒ 1950년대 속초시 지역 업소 현황

604쪽, 위에서 1째줄, 문장 삭제

3구시장은 1966년 ‘중앙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6년을 전후로 해서 속초는 설악산 관광이 활기를 띠었고, 중앙시장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60여 개의 건어물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

⇒ ‘3구시장은 1966년 ‘중앙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삭제

607쪽, 위에서 6째줄, 명칭 수정

청호동 북쪽 마을 사람들은 갯배를 이용하면 중앙시장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규모가 큰 청호시장을 이용했다.

⇒ 중앙시장

609쪽, 각주 60) 단어 수정

각주 60) 인정시장(상가)는 종합중앙시장 주변으로 파생된 개별상가라는 뜻으로 상인 및 시청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부르는 명칭이다.

⇒ 인정시장(상가)은

618쪽, 위에서 6째줄, 단어 수정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 「국세기본법」상

627쪽, 아래 맨 마지막줄, 문장 추가

~ 무담보 대부의 경우 최고 6.0%에서 최저 2.5%였다. 1926년에는 대포금융조합이 설립되었다.

628쪽, 위에서 8째줄, 문장 수정

화폐개혁이 단행되던 1953년 6월 속초지역에는 도천면어업조합이 속초어업조합으로 발족하였다.

⇒

1953년 6월 속초지역에는 속초어업조합이 발족하였다.

631쪽, 아래에서 12째줄, 지역 수정

1) 속초농협

속초농협 본점은 중앙로 21(중앙로)에 소재한다.

⇒ 교동

632쪽, 아래에서 2째줄, 년도 수정

2) 속초시수협

속초수협 본점은 설악금강대교로 67(청호동)에 소재한다. 1920년 3월 대포리에서 ‘도천면어업조합’으로 시작하였다가 1953년 6월 속초어업조합으로 발족하였다.

⇒

1923년 대포리에서 ‘도천면어업조합’으로 시작하였다가”

641쪽, 아래에서 4째줄, 년도 수정

속초지역에는 1941년 동명동에 건립된 속초역과 간이역으로 운영된 대포역 등 2곳의 역이 있었다.

⇒ 1937년

643쪽, 위에서 3째줄, 지명 수정

속초지역은 1953년 12월 원통령~대관령~간성 간 도로가 원통리~속초 간으로 직선화되었다.

⇒ 대간령

648쪽, 위에서 1째줄, 문장 수정

그리고 1960년대는 속초에 처음으로 민간항공이 취항하게 된다. 1961년 군용으로 개설되었던 속초비행장에 1969년 1월 대한항공이 서울↔속초 노선을 처음 취항하면서 민항기 운항이 시작됐다. 이로써 속초 비행장은 민간 공항인 속초공항이 되었다.

⇒

그리고 625 한국전쟁 중 군용으로 개설되었던 물치리 비행장에 1967년경 첫 민간항공기 극동항공이 서울↔속초 노선을 취항했고, 1969년 대한항공이 서울 ↔ 속초 노선을 취항했다. 이로써 속초에 있던 군용 비행장은 민간 공항인 속초공항이 되었다.

650쪽, 아래에서 7째줄, 문장 수정

1937년 대포에 있던 면사무소가 현재의 시청 자리로 옮겨오고, 기차역까지 우렁골에 들어서면서 그 위상이 서서히 바뀌던 중이었다. 그러던 차에 버스터미널까지 들어오면서 신혼 변화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여관과 여인숙들이 주변에 들어섰고 약국도 들어왔다. 비슷한 시기 법원·검찰청·속초방송국·속초문화원 등이 옮겨오면서 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시내 관공서와 중앙시장 등의 요지가 모두 위치하게 되었다.

⇒

1937년 대포리에 있던 면사무소가 속초리(영랑동)로 옮겨오고, 기차역까지 우렁골에 들어서면서 그 위상이 서서히 바뀌던 중이었다. ~ 주변에 들어섰고 약국도 들어왔다. 이후 법원·검찰청·속초방송국·속초문화원 등이 건립되면서 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시내 관공서와 중앙시장 등의 요지가 모두 위치하게 되었다.

675쪽, 위에서 5째줄, 문장 수정

속초항 1차 축항이 완료된 1936년 12월 동해북부선 철도가 개통되어 양양역과 속초역이 개설되었다

⇒

속초항 1차 축항이 완료된 이후 동해북부선 철도가 개통되어 양양역과 속초역이 개설되었다.

694쪽, 아래에서 1째줄, 숫자 수정

그리고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수압을 높이기 위해 교통·설악동·자활촌·대포농공단지·적산리·떡밭재 등 5곳의 상수 가압장이 운영된다.

⇒ 6곳의

709쪽, 아래에서 6째줄,

속초시민들은 아동에서 고령까지 모두 초고속 무선인터넷에 기반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